나이와 자아 정체성

엄정식

나이란 사람이 살아온 햇수를 계산하는 사회적 장치이다. '나이 듦'은 시대적 혹은 문화적 영향을 받지만 구체적인 개인의 성품과 기질 혹은 선택과 결단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 사람의 삶을 이해하려면 그가 성장해온 자연적 조건과 더불어 사회적 환경과 개인적 특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시간의 흐름과 나이 듦을 막을 수는 없지만 자아의 인식을 통해 그것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관리할 수는 있다. 나이와 관련해 행복의 추구보다는 자아 정체성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다.

주요 논의내용
- 나이와 자아 정체성
- 자아 정체성의 조건: 욕구, 능력, 의무
- 행복을 위한 자아인식

자아 정체성이란 '내가 나로서 나답게 사는 방안'을 모색하는 문제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말해 '욕구'와 '능력'과 '당위'라는 세 변수를 삶의 흐름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자아의 정체성은 이 세 변으로 형성된 하나의 삼각형이다. 이 삼각형을 이해한다는 것은 인생의 전개 과정에서 한 개인의 존재와 당위가 어떻게 규정되는지 파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체적 및 정신적 성장의 특징에 따라 나이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고찰할 수 있다. 가령 유소년기는 육체적인 성장기이므로 신체의 발육과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고, 청년기에는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인격의 도야와 지식의 습득에 진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장년기에는 자신이 성취한 것을 누리고 봉사하는 시기이므로 명예를 지키고 긍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노년기에는 과욕을 삼가고 삶의 의미를 음미하며 죽음을 예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입장과 사회적 및 시대적 여건에 따라 각자의 욕구와 능력 그리고 당위가 상당히 다르므로 이것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결국 '나이 듦'이란 각자의 실존적 선택과 결단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각자 살면서 자신의 나이를 먹는다. 그러한 의미에서 행복도 자아 정체성의 부산물일 뿐이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바라지만 행복이 무엇인지 규명하기는 어렵다. 행복의 개념을 더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다음 몇 가지 점들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행복은 특정한 상황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개념이다. 둘째, 행복은 선악의 가치가 개입된 윤리적 개념이다. 셋째, 행복은 체계적인 인생의 계획과 실현에 관계된 합리적 개념이다. 마지막으로 행복은 행운과 축복을 필요로 하는 섭리적 개념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우리는 행복이란 "합리적인 인생 계획을 가진 사람이 윤리적인 차원에서 자기의 의무나 당위를 이행하는 동안 총체적 자아에서 우러나온 소망을 성취시켰을 때 얻는 우연적인 만족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만족감을 경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게 된다. 더구나 우리는 자신의 총체적 자아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생 계획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태도를 유지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엄정식

1942 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강대학교 철학과와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미국 웨인 주립대학교 인문학 석사학위와 미시간 주립대학교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로 있다. 지은 책으로 『지혜의 윤리학』, 『비트겐슈타인과 분석철학』, 『당진일기』, 『길을 묻는 철학자』, 『나루터 가는 길』 등이 있다.

따라서 행복을 추구하는데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시시각각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거기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자아 정체성의 확인 혹은 자아의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자아가 나의 욕구와 능력과 당위라는 세 변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이라면, 자아의 인식은 이 삼각형의 모습과 크기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삼각형의 모습은 역경에 처했을 때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무엇을 원했는지 분명해지며, 자기 능력이 부족한 탓인지 또는 자기가 처한 상황 때문인지 비로소 확실해지기 때문이다.

자아의 인식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제기함으로써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의 모호성과 추상성 때문에 항상 당혹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깊은 성찰을 통해 끊임없이 질문을 제기하고 너무 일그러진 삼각형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모습을 형성해 나가는 일이다.

이러한 인식과 성찰을 어떻게 인생의 여정을 관리하며 바람직한 나이 듦에 적용할 것인지 세대별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청년 세대는 무엇보다 신체적 측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에 체력을 단련하지 않으면 우선 건강을 유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년이나 노년기의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서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어려운 과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젊었을 때 시작하고 더 많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노년에 이르러서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경제적 여유나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풍요로움을 예비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독서와 여행을 통해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풍부한 경험을 쌓아두는 것이다.

현재지향적인 장년층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자신의 존재이유와 당위를 확인하고 또 입증해야 하는 시기에 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장년 세대는 자아 정체성의 의미 있는 변화를 의식하고 수용하는 시기라고 해석할 수 있다.

노년층은 과거지향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전반적으로 삶의 의미를 음미하고 하늘의 뜻에 따라 적당한 때에 물러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소망과 능력과 당위라는 세 변을 잘 조절하여 작지만 아름다운 삼각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게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예비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세상을 살아가는 식견이나 지혜도 그만큼 많이 축적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과학기술문명이 발달하면서 정보를 응용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진 것이다.

결국 ‘나이’에 관한 전통적인 인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음을 우리는 수긍할 수밖에 없다. 첨단 과학기술의 접근성이 용이한 젊은 세대가 반드시 더 식견이 높고 지혜롭게 된 것은 아니지만 노년기에 접어든 세대에 대한 인식이 많아 달라진 것도 또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의식하는 것이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자연의 섭리를 거역할 수 없는 한 여전히 ‘나이 듦’이란 음미할 가치가 있으며 ‘나이답게’ 산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이다. 나이와 관련하여 행복의 추구에 급급하기보다는 먼저 자아 정체성 혹은 자아의 인식이라는 문제를 검토하고 각자가 자신의 세대와 시대를 ‘나로서 나답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일시
2023 년 4 월 3 일, 오후 7 시 30 분-9 시 30 분

장소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본 강연은 촬영할 수 없습니다.
*강연 후 발송하는 문자 설문에 응답 부탁 드립니다.

설문링크
https://forms.gle/K4MmZziXLts5xDwBA